

## 기술본부, 조직문화 활성화 위한 런치미팅 시행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런치미팅을 2월 21일 본사 21층 상황실에서 시행했다. 이번 런치미팅은 전철전력, 신호, 통신, 궤도, 수송, 차량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본부 특성에 맞추어 직원들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본격적인 런치미팅에 앞서 '13년도 창의혁신 영역별 실적 평가 및 '14년 계획표와 자체 윤리 및 보안교육을 시행하는 등 창의적이고 청렴한 본부를 만들기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조직문화 활성화에 가까이 동참하였으며, 각 분야간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만족감을 표했다. 본부는 앞으로도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기술본부 심훈민 기자)



## 충청본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철도산업발전 주도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되는 1분기 교육을 시작으로 2014년 매 분기마다 철도건설 분야별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현장중심의 직무역량 강화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였던 기존 교육과 달리 철도교통개론부터 도면, 시방서, 시공상세도 등과 같이 현장 중심의 실무에 유용한 내용을 'Level 1'부터 'Level IV'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게 된다.

3월에 실시되는 'Level 1' 교육은 분야별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철도연구촉진계획을 위한 철도교육의 수요예측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통합 교육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철도산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전문분야 과정은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의 내실을 확보하고, 철도교통계획 및 구조물 분야는 노 본부장이 직접 강의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본부는 철도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개론 과정인 'Level 1'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본부 성동일 기자)

단계	교육 내용	시기
Level I	○ 철도교통 시스템의 이해 ○ 분야별 철도기술 일반	3월
Level II	○ 분야별 전문기술 - 설계, 공법, 시공술	2분기
Level III	○ 현장실무 심화교육 - 설계의 시공기술 적용, 시공 개선	3분기
Level IV	○ 현장 시공기술 관리 - 자재, 설계서, 적산	4분기



## 유유부지 활용한 저소득층 빈곤탈출 사업 추진

- 저소득층 이웃에게 '희망 텃밭' 제공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립을 돕고자 철도 유유부지를 활용한 '희망 텃밭' 지원제도를 3월부터 시행 운영한다.

시범 운영지역은 주거지역과 도로가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형태로 작물경작이 쉬운 경남 창원시 3개소, 경북 영천시 1개소 등 4개소 약 6400㎡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설치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최저한도(㎡당 260원)로 결정됐다.

임대를 희망하는 주민이 오는 3월 7일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센터(총무계에 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서류심의를 거쳐 텃밭의 사용자와 임대면적을 확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희망 텃밭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지역사회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범지역의 성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 텃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남본부(재산부 051-664-5467, 5475)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본부 김상대 기자)

## "신바람 나는 일터! 소통의 동호회 활동으로 만들어 갑니다"

- 강원본부, 2014년 동호회 연간 활동계획 발표회 개최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3월 4일 강당에서 본부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동호회 연간 활동계획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 되었으며,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전차사랑(MTB), 삼지서각회(서각)뿐만 아니라 신설된 물방개동호회(수영), 당돌이동호회(당구) 등 4개 동호회가 참여했다.

발표회에서는 각 동호회별로 연간 주요활동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전차사랑 동호회는 2005년 동호회 결성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을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삼지 서각동호회는 작년 3/4분기 전차회를 통한 작품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직원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수영동호회는 본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수영장이 있어 새벽 운동도 가능하고, 당구동호회는 실력향상을 위한 선수초빙 레슨과 회원간의 단합을 위한 월 정기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직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본부장은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신바람 나는 직장화 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본부는 매 분기별로 동호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공단의 미래지향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 호남본부, 사랑의 잔돈 모금액 전달

- 꾸준한 소년소녀가장 돕기로 이웃사랑 실천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영)는 2월 27일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모금액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본부는 직원 100여 명이 작년 2월부터 시작한 본부내 '사랑의 잔돈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한 모금액을 매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12개월 동안 240만원(월 1만원) 27가정을 꾸준히 지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김 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희망을 주기위해 '사랑의 잔돈 모금운동'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급여지출도 모으기, 나눔펀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강원본부,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참여

- 삼지 서각동호회 서각작품 판매금 100만원 전달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2월 24일 본부 상황실에서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후원금 100만원을 원창목 원주시장에서 전달했다.

후원금은 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삼지서각동호회 전시회를 통해 작품 판매한 금액으로, 동호회는 2010년 천사후원금 410만원을 시작으로 작품 판매 금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본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 주요뉴스 ('14.2.24~'14.3.9)

- 광주송정역사 골목 드러나다 (광주일보02)
- 김서민 오늘부터 공공기관 대박기 (서울신문01)
- '경인전철 지하화' 100만명 선호사 (동아일보08)
- 주승용 "보상~복로 고속철 재착공" 촉구 (무등일보04)
- 호남선 KTX 또 세대전 경우 '들막' (전북일보02)
- 동대구북합승센터 교통대란 면하나 (한국일보14)
-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천사운동기금 기탁 (강원일보19)
- 철도노조, 또... 오늘 24시간 파업집행 (경인일보12)
- 국토부 신라 공공기관 출신승려급 '현차법' (경향신문02)
- 가짜 영복주막, 문화 교육 복합타운으로 (한국경제25)
- 케이뱅크·호남선 KTX... 대항사업 정치논리에 흔들흔들 (서울신문29)
- 광역~소속 산업철도 부실공사 의혹 (경기일보01)
- 정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영호남 민간단체에 경의 협력 (동아일보150)
- '숨도~청량리' GTX 착공 차대통령 공약 지켜달라 (경인일보16)
- 또 철도파업... 공공개혁이 왜 필요인지 보여줬다 (한국경제39)
- 철도시설공, 60억대 필리핀 경전철 사업 수주 (매이뉴스27)
- 철도시설공단 동남아 진출 교두보 (중도일보07)
- 철도공단 호남본부, 노인돌봄시설 방문 (광남일보12)
- 신세계, 동대구합승센터 건립 '주역구' (경북일보01)
- 전북 "호남고속철 세대전 경우 안돼" (동아일보15)
- 인천시 "GTX 속도 감속 임박" 주장 (동아일보158)
- KTX 새호역 논란, 언제까지 외면할까 (중앙일보30)
- 철도공단, 필리핀 전철 시공감리 수주 (한겨레138)
- 철도시설공단 소외계층 청소년에 희망전달 (중도일보19)
- GTX 경기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역 노선 우선 추진 (조선일보02)
- 철도파업 노조간부 130명 파면-해임 (동아일보13)
- 수색역 일대 '제2 타일승객터' 개발 (매일경제28)
- 호남고속철 광주차량기지 건설 '직착' (무등일보09)
- GTX 일산~동탄 구간부터 건설 (경인일보03A)
- 호남고속철 정차역 신설 놓고 지자체 갈등 (서울경제31)
- 인양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주민설명회 (인천일보09)
- 수도권에서 강남까지 'GTX B노선' 변경 (경인일보1A)
- 철거 위기 대구 북부역건설, 예비선으로 활용 (영남일보04)
- "중대중부선 철도 연장~삼척 구간, 4월중 설계완료" 하반기 공사 발주 (경북일보2)
- 법원 "철도분쟁 민영화 반대 집회는 불법" (조선일보13)
-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0년 완공도 어렵다 (경주일보1)
- 단계별 착공으로 경제성 낮아진 GTX (동아일보148)
- 동서철조기착공·속도향상... 오늘 국회확보 논의 (강원일보23)
- "오송역서 불과 10분 거리 KTX 새호역 신설 안돼" (세계일보13)
- '남북 연결 할 경선철 철원까지 연장해달라' (강원일보17)
- "안전 직결된 소기관 비록 최우선 수사" (서울신문1)
- '제2의 KTX 비라' 댄 연루 기에도 철회 (서울신문09)
- 대전역사 내내 민간사업자 공모 (대전일보02)
- 원주~강릉 고속철 열차 남동 현대로템 15개편 150명 계약 (서울신문16)
- 고속철도 공사구간 안전점검 (대전일보09)
- 경부고속철도 육전 임시구간 철거 (충청투데이17A)
- 지하 50m GTX 토지보상 4천억 (경인일보10A)
- 영선 서부동 고품위급이 벗어나 권익회 중재로 진입로 건설 (경북일보04)
- 경부·2선 분리해 지하화 (경인일보21)
- 충청권 최대 철차 이슈로 비화된 'KTX 호남 노선' (국민일보10A)
- "호도유고 지하화 조속이행" (중도일보04)
- 철도산업, 국산 보호율 없애져 '비상' (한국경제04)
- 공기업 부채, 공사채 의존도 90% '심각' (매이뉴스11)

**경 조 사**

- 시사시론부 해임당사자 김건 부장 모창성 & 수도권부 재선원칙 오성미 대리 시모창
- 발 인 : 2014년 2월 24일
-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김성락 부장 취임
- 발 인 : 2014년 3월 12일
-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강병모 차장 임명
- 일 시 : 2014년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울 중구로 중학동 19
- 기획혁신본부 업무처 어일동 부장 임명
- 발 인 : 2014년 3월 11일
- 아행기호 광역문정